

농진청, 2022년 예산 1조1893억원 확정

올해보다 932억원 증액... 디지털농업 확산·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중점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2022년 예산이 올해(1조961억원)보다 932억원 증가(8.5%)한 1조1,89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7.0%)보다 1.5%p 높은 수준이다.

2022년 예산을 통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 확산과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 지원 및 농업 현장의 현안 해결과 실용화 기술의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주요 부문별 예산은 6개 부문으로 ▲농산업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보급에 3,022

억원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 혁신 기술 개발·보급에 2,674억원,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확인에 877억원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환경 보전 등 탄소중립 지원에 996억원, ▲농촌소멸에 대응한 청년농업인 지원 및 지역농업 활성화에 1,210억원 ▲국제협력 및 수출자원을 통한 K-농업기술의 전파·확인에 428억원 등을 편성했다.

주요 부문별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방제기술과 농업 기상재해 및 축산 분야 미세먼지 피해 저감기술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현안 해결기술을 개발하는 예산이 올해(2,657억원)보다 365

억원(13.7%) 증가한 3,022억원 반영되었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국산 우수품종 개발과 논 재배에 적합한 발작물의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예산이 올해(2,511억원)보다 163억원(6.4%) 증가한 2,674억원이 편성되었다.

셋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다양한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과 노지디지털농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예산이 올해(637억원)보다 240억원(37.6%) 증가한 87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넷째,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응한 저

탄소 농업기술 개발과 농업기후 변화에 따른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예산이 올해(910억원)보다 86억원(9.4%) 증가한 996억원이 반영됐다.

다섯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창업과 사업화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1,018억원)보다 192억원(18.8%) 증가한 1,210억원을 반영했다.

여섯째,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식품·농산업을 수출확대와 K-농업기술을 세계로 전파·확산하는 예산이 올해(413억원)보다 15억원(3.6%) 증가한 428억원이 편성됐다.

이외에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에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신규사업은 노지작물 생산기술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활용 기본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농산물 저장·수급관리기술 개발, 농산물의 다양한 목적별 성분 데이터 및 소재화 연계 융합데이터 구축, 농농업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 총 9개 사업으로 40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박병홍 청장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내 경기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2022년 예산의 81.3%(9,674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가경기 부양과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개공, 7년 연속 '청렴도 우수' 선정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2등급 이상)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국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9개 공직유관단체 중에 전북개발공사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에서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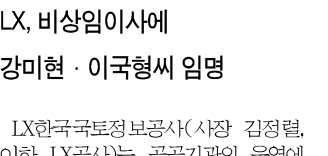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의무임을 전 직원이 인식하고 추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번 청렴도 측정평가를 통해 나타났으며 "오늘의 결과가 안주하지 않고 더욱 신뢰받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이로써 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7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 전국 592개 공공기관 중 지속적인 청렴정책 수행 측면에서 가장 청렴한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의무임을 전 직원이 인식하고 추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번 청렴도 측정평가를 통해 나타났으며 "오늘의 결과가 안주하지 않고 더욱 신뢰받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이국형 이사



김미현 이사

LX, 비상임이사에

김미현·이국형씨 임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김미현·이국형씨(가나다순)가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고 9일 밝혔다.

김미현 비상임이사는 호원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에서 건축공학으로 석사를 취득했으며, 전북대 대학원에서 건축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원광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건축사무소 예감 대표이다.

이국형 비상임이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기획예산처 재정감사기획관,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 조달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부 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재단법인 스마트건설교육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임기는 2023년 11월 30일까지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남원시에 250만원 상당 방한키트 전달

전북은행, 남원시에 250만원 상당 방한키트 전달

남원시는 9일 JB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250만원 상당의 방한(warm) 키트 50세트(담요, 내외마, 수면바지, 수면안방)를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매년 이웃돕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은행은 이날 기타삭에는 이성란 JB전북은행 부은행장과 천현경 남원지점장이 참석했으며, 관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 "전북은행이 남원시민의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만큼 시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520달러 이상 해외에 송금하면?

전북은행, 오늘 '창립 52주년 기념 수수료 면제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10일 창립 52주년을 맞아 미국 USD 520달러 이상 해외송금 고객을 대상으로 '창립기념일 당일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립기념일인 12월 10일 하루 동안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당일 전북은행 각 영업점에서 해외로 외화송금시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USD 520달러 이상 해외로 외화 송금 시 전신료를 포함한 송금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거래 통화 및 금액은 제한 없으며, 송금 횟수에 관계없이 같

은 고객이 여러 번 송금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해외중계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에서는 평상시에도 전신료 8천원을 부담하면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창립 52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이번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이벤트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bank.co.kr), 뉴스미트뱅크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창립기념일(12.10) 단 하루!
전북은행에서 해외송금 보내면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0일 창립 52주년을 맞아 미국 USD 520달러 이상 해외송금 고객을 대상으로 '창립기념일 당일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공공기관 최초 SBTi 가입으로 탄소중립 선도

농식품유통공사, 실천적 ESG경영 가속화 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글로벌 환경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며 실천적 ESG경영 가속화에 나선다.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는 파리 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 설정을 돕고 이를 검증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SBTi는 세계자연기금(WWF), 탄소공개프로젝트(CDP), UN글로벌compact(UNGC), 세계자연연구소(WRI)가 공동 운영하며, 현재 전 세계 2,2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 공공기관 중에는 공사가 유일하다.

공사는 SBTi 가입으로 ▲친환경·저탄소 농수산식품 생산 지원 ▲로컬푸드 및 온라인 거래 확산, 식량 자급률 제고를 통한 먹거리 운송거리 축소 ▲비축농산물 폐기 관리 등 고유사업을 통한 2050년까지의 먹거리 분야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계

획이다. 이와 더불어 비즈니스 임베이션 포 1.5°C 캠페인에 참여해 먹거리 분야 탄소배출을 선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이번 SBTi 가입이 공사의 ESG 경영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딱거리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의 과학적 기반 마련으로 대국민 확산에도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 169개 농수산식품 협력기업과 함께 ESG경영을 선 포한 이래 ESG 경영진척 수립, 이사회 내 ESG전문위원회의 신설, ESG경영 전담부서 및 CEO자문위원회 운영, 저탄소 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확산 주도 등 ESG 가치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2021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대한민국 정부포상을 받은 유공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 안심사회 향한 실천의지 모아'

2021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은탐산업훈장에 한화에너지 김동준 센터장 수상받아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치러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2021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전기안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에너지안전 분야 최대 행사 중 하나다.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며, 국민 안심사회를 향한 실천의지를 모으는 자리다.

올해 행사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다. 특히,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 실황이 온라인으로 중계되며 참석자 이외에

일반 국민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과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강훈식 의원, 임해중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대한전기학회 김철환 회장 등 각계 인사와 전기업계 종사자, 유공자와 가족 등 90여 명이 함께 했다.

올해 전기안전대상에서는 전기안전 산업육성과 안전관리에 힘쓴 개인과 단체 유공자들에게 은탐산업훈장과 정부포상 14점, 산업부 장관표창 및 상장 3점 등 총 20점이 수여됐다.

전북 신선농산물, 극동러시아 사로잡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서 판촉행사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우수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전라북도 신선농산물 홍보관측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극동 러시아 지역인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로브스크의 삼베리(Sambori)마트와 레미(Remi)마트 총 10개 매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대표 품목인 배, 사과, 사인머스켓 3개 품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출액은 약 8만 1,000달러(한화 약 1억원) 선적되었다. 이번 극동러시아 신선물 판촉행사는 전라북도 대표 농산물인 배와 사과, 사인머스켓 등의 극동 러시아 시장 개척을 돕고, 전북 신선농가들의 향후



수출관로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러시아는 지리적 특성상 과일 재배가 어려워 비교적 재배가 쉬운 곡물류 중심으로 섭취하고 있으나, 건강관심 이 이슈가 되면서 채소, 과일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차원에서 재배면적을 늘리고 있으나 한국산 신선물의 품질이 좋아 한국산 신선물의 소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러시아 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전라북도 신선농산물 중심의 홍보 관측 행사가 극동러시아 시장을 개척함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신규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수출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은 "향후 진흥원은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과일류,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해 신선농가들의 해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바이오진흥원은 향후 전북 신선 농가들이 극동러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신남방 지역 등 신규 해외 지역 수출 판로를 개척하도록 추가적인 판촉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